

<2017년 6월 25일 주일말씀>

다른 데 더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라

본 문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데 더 좋은 뜻이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

◆ <잘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 잘했는데도 안 될 때는

뜻이 딴 데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 ◆ <피곤하다고 쉬었는데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피곤한 것이 쉬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 어느 때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찍 잔 것과 상관없이 깨워 주지 않으니 못 일어난 것입니다.

- ◆ 어느 때는 늦게 잤는데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는 성령이 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 ◆ 이와 같이 <자기가 잘했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 반복해서 해야 될 것도 있으나,

- 그것이 뜻이 아니고 다른 데 뜻이 있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 ◆ 성전을 사려고 기도하고 잘했는데도

상황이 틀어져서 못 사고 모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 책임 분담을 못 하고 빨리 거듭하지 못 해서 못 살 때도 있지만,

- 다른 곳에 뜻이 있어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 ◆ 한번은 ‘그 지역에 좋은 건물’이 나와서 사려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잘했는데도 상황이 틀어져서 그 건물을 못 샀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성전’은 못 사고,

그 대신 ‘다른 지역의 성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못 산 지역’은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찾아보자.” 하고 1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성전을 못 찾아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건물’이 아닌 ‘잘 만들어진 교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올해 알파절 이후에

‘2개의 뜻 있는 건물’을 더 찾고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70일 기도 기간>에 얻었습니다.

또 <70일 기도>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잘했어도 안 되는 일>은

- 책임 분담을 못 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 다른 데 좋은 뜻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책임 분담을 하게 하시고, 빨리하게 하시고,

혹은, 이것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뜻을 두시고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성자가 휴거 역사를 펴시고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3년 만에 섭리사에 **40여 개의 성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역사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찾고 얻었습니다!

◆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아서

끝까지 구하고 행하며 기다려야 찾고 얻게 됩니다.

- ◆ 전도도 <잘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무너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다가 힘이 빠져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전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뜻>이 그쪽으로 더 좋게 흘러간 것입니다.

- ◆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것’ 이니,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더 좋은 것’ 으로 해 주십니다.

- ◆ 사람은 ‘신’ 이 아닙니다.

고로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벽’ 에 부딪힙니다.

고로 늘 하나님과 주를 깊이 믿고,
하나님과 주께 맡기고 같이 해야 됩니다!

- ◆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낮게, 더 좋게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100% 믿어 드리고,
<기도>로 투자하고 <실천>으로 투자하기 바랍니다!

- ◆ 만사에는 다 ‘때’ 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만이 절대적인데 그 때를 자기는 모르니,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와 실천>으로 투자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 ◆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으로 하다가 안 되니,

<자기 의지, 자기중심의 생각> 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이라고 하며 실천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열을 내며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 길’ 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라고 하며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그 계곡, 그 사막 길’ 을 그냥 가게 두시니,
결국 차가 가다가 멈추고 ‘절벽과 사막’ 에서 끝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의 때를 따라서 보낸 자’ 를 데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를 펴 나가십니다!

◎ 지금까지 ‘다른 데 더 좋은 뜻이 있다.’ 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전환> 중요 부분

◎ 이제 살짝 방향을 돌려서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하늘 신부들이 알고 행할 귀한 말씀>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

◆ **<고통스러운 것>**도 재미있고 좋으면, 자꾸 하게 됩니다.

◆ **<금식>**도 좋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고통스러워도 합니다.

그때 기도도 깊이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금식은 살도 빠면서 건강도 좋아지니

여러 가지를 겸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워도 얻는 것’ 이 있으면, 좋아하면서 합니다.

◆ 반면 <좋은 것>이라도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 좋아하고 재미있어야 실컷 하게 되니
<좋은 것>을 찾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 (중요)

전도, 관리, 강의, 주 안의 모든 일을
고생해도 실천함으로 ‘소중한 것’을 얻는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도
좋아서 자꾸 하게 됩니다.

◆ 환난과 핍박 때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 ‘장차 얻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헤치고 보다 즐겁게 갑니다.

<현재의 고통>과 <장차 얻는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중요)

파도를 헤치고 가면
보물섬에서 자기 애인이 보물을 찾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헤치고 재미있게 가게 됩니다.

<파도 타는 법>을 배우고 ‘파도’를 타고 가면,
파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파도가 ‘밀어 주는 힘’이 되어, 보다 쉽고 빨리 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환난과 뽀박이**
자기가 하늘 길을 가게 밀어 주는 작용을 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윈드서핑은 바람과 파도가 없으면, 아예 못 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서도 ‘이런 코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 (중요)

<하나님과 성령과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엄살’이 많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이게 뭐야? 추워 죽겠네. 에이씨.. 시험인가? 뽀박인가?” 합니다.

여름에 햇볕이 쨍쨍하며 무더우면, 역시 또

“이게 뭐야? 더워 죽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합니다.

◆ (중요)

<하나님과 주의 신부들>이

- 부잣집 아들딸같이 <고생>을 안 해서 ‘엄살’이 많고,
- <연단>을 안 받아서 ‘위축감’이 많습니다.
- 또 값없이 <사랑>을 주니 오히려 ‘서운함’을 잘 타고,
- 구하지 않아도 <주>가 잘 가르쳐 주니 ‘소전’이 좁습니다.

◆ (중요)

세상은 ‘**뽀박**’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연단의 기회**’라고도 하시고,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도 하십니다.

연단을 받고 시험을 이기면, 무조건 ‘축복’ 입니다.

- ◆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보세요.
목숨 걸고 절벽을 타고, 100리씩 뛰면서 자기를 연단합니다.

국가 대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어려운 훈련을 반복해서 수천 번씩 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신부들>도 그같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 백보좌에서 뛰어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 ‘큰 뜻’ 을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 ◆ 전능자를 믿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이 코스를 뛰면 험하겠다.

무슨 뽀박이나. 이 코스가 어려운 것이지.

어서 가자! 이 코스 지나면 괜찮다.” 하고 가야 됩니다.

- ◆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이
항상 ‘시험과 뽀박과 환난’ 으로 몰아붙이며 힘들어하니,
사탄이 더 좋아서 심리적으로 몰아붙여 낙심하게 합니다.

- ◆ 히말라야, 알프스, 기타 험한 산을 타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힘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험한 코스’ 를 가면,
발이 불편하고 마음도 몸도 불편한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인생의 험한 코스를 ‘자기 연단’ 으로 생각하지만,

<믿는 자>는 그 코스를 ‘환난, 핍박’으로 규정짓고 대하니,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더 엄살을 부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리도 세상 역경을 모르느냐?” 하십니다.

용감하게 행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시고

“그래도 내 신부들이 <생각>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구나.”

하고 도우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환경과 처지에서 당연히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안 돕는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나 지르고 서운해합니다.

<축복을 받고 잘되려 가는 길>에

계단이 높고 많고 험하여 땀이 난다고,

왜 안 돕느냐고 소리 지르며 서운함을 탐니까?

- ◆ 선생이 21년 동안 산속에서 굶으면서 기도할 때,
누가 도와서 했습니까?

서울에 와서 70일 동안 굶었을 때도

내 형제와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는

“이제 틀렸다. 죽었구나.” 하고 쌀 한 톨도 안 주고 갔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사는 큰형 집에 기어서 겨우 갔습니다.

그때 큰형은 밥을 먹고 있었고,
나는 못 먹어서 비쩍 말라 있었는데도
형이 내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서운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서운하게 생각하니,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배고프다고 말했냐. 말 안 하니 몰라서 밥 못 줬지.
너 금식하는 줄 알고, 밥 먹으라고 안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 ◆ 이와 같이 ‘자기가 가는 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 그때 깨닫고 이기면, 꼭 ‘축복’ 이 옵니다.
 - 또 하나님께나 상대에게나 말도 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 ◆ <여름>이 오면 덥고 땀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덥지? 더워서 죽겠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계절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알미워서 땀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겨울>이 오면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품을 잡습니다.

다 큰 청년, 어른이라도 ‘아기’입니다.

- ◆ 여름에 덥다고 짜증내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리**로 기울면,

하나님은 모세 때 그리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대하시며, 스스로 ‘광야 길’로 가게 두십니다.

- ◆ 자녀들 중에서 자기가 많이 먹고 살이 찌고 배가 나왔는데,
자기 엄마를 보고 “엄마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어.” 하며
밥해 준 엄마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주를 원망하며 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 ◆ 바느질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바늘에 찔리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 ◆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도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이용하여 깨우쳐 주지,
〈하나님이 일부러 실수하게 하여 고통을 주며 계시를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이 오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 ◆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서 하면,
알고 ‘신’과 같이 행합니다.

- ◆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무리하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아프게 못 해 주나?’ 하며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리하는데, 안 아프게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몸이 다 망가집니다.

무리했을 때 몸이 아파야, 더 무리하지 않고 쉽니다.

아파서 쉬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쉬고 노느냐?”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도 너같이 일을 많이 하다가 쉬러 왔다.” 하시며
그와 같이 쉬면서 이야기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에 보면,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축복의 열쇠’를 놓고 가셨습니다.

가서 따 보면, ‘축복’이 나옵니다.

- ◆ 가끔 선생에게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악착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지만,

파도타기를 하며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자입니다.

- ◆ (중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끝이 나지요?

이와 같이 어려움도, 역경도, 시련도 계속 끝없이 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소리나 지르고 답답해하면, 속만 더 타들어 갑니다.

입을 막고 희망으로 할 일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때가 나름대로 ‘좋은 것을 얻는 기간’입니다. 믿습니까?

- ◆ 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의 세계에서
<시대 말씀>과 <성경의 인봉>과 <각종 축복들>을 다 얻고 갑니다.

39년의 섭리역사 기간 동안,

<선생이 고통의 세계에 있는 10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이니, <내 삶>이 ‘천국’ 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이 ‘지옥’ 을 만들고 ‘천국’ 을 만듭니다.

◆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사랑의 마음 보따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 <감사>로 ‘하나님 전’ 에 들어가고,

<찬양과 영광과 사랑>으로 ‘하나님 전’ 에 들어가야 됩니다.

◆ <휴거된 자>는 ‘사고’ 가 뒤바뀌어 있으니,

<뒤바뀐 사고>로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 말씀 마쳤습니다.